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예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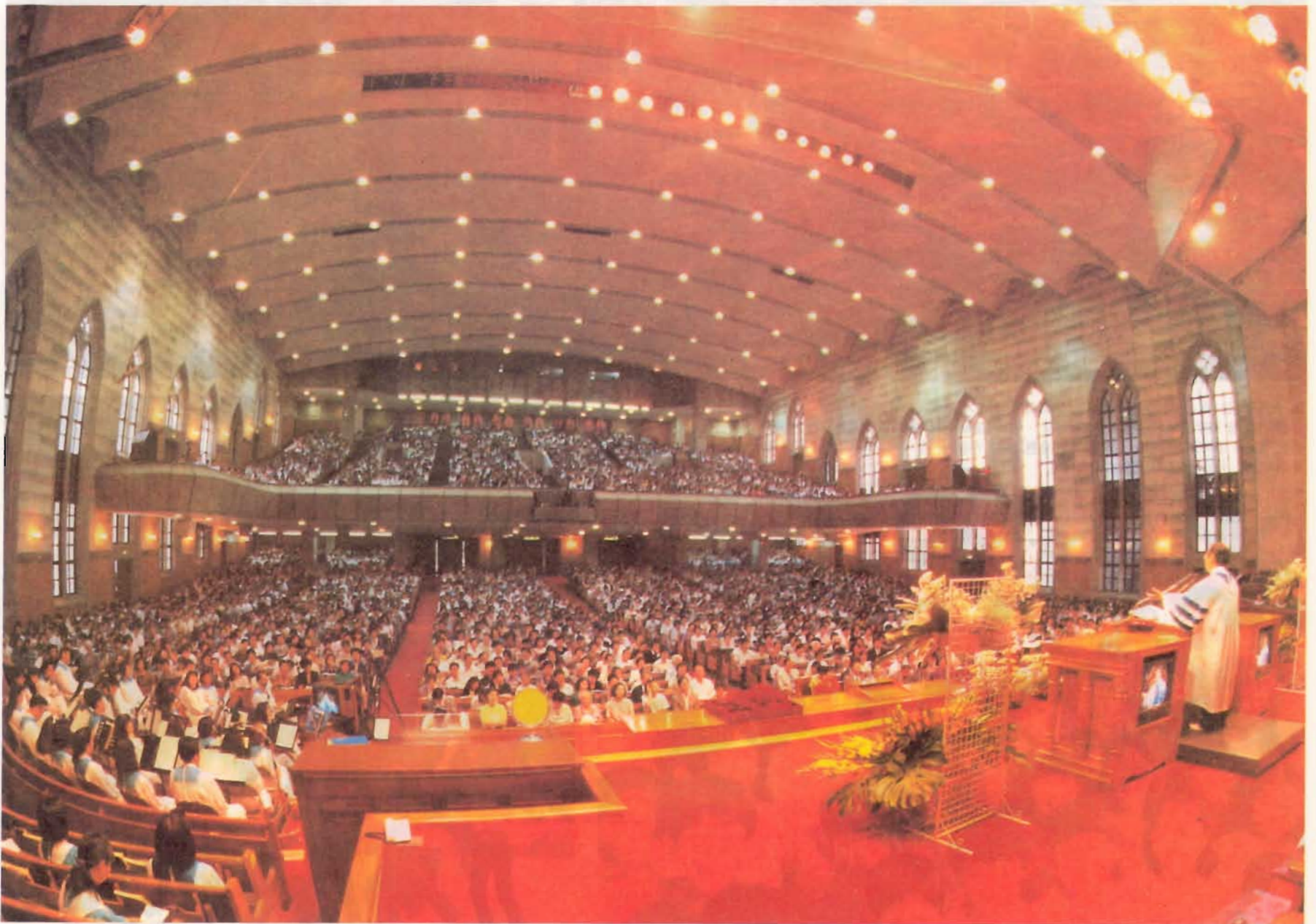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10월17일 참된 안식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섬의 장소, 참 안식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섬의 장소, 참 안식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10월 17일, 어떠한 시간에든지 오십시오.
저희 충현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그 시간에
참된 안식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에
안식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10월 17일, 여러분을 우리 충현교회당에서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0장」 중에서 —



28393



사진으로 보는 충현교회



▲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
· 천국일꾼을 키우자 ·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라는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충현교회는 주일 낮 네 차례 예배와 저녁 찬양예배, 수요일에는 두번의 예배,
새벽기도회, 금요특별집회 등으로 모입니다.



▲ 충현교회는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의 주요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연령과 특수성에 따라 35개 부서로 세분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교회 내에서 밝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모습.



▲ 충현교회는 사람을 나누는 공동체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됨을 확인하고 서로 도우며, 섬기
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되기 위한 여러 모임과 행사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교구
찬양대회, 각 전도회별 친교모임 등. 사진은 충현올림픽의 한 장면



▲ 충현교회는 세계를 교구로 삼고 전 세계 97개국에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 주일 영어예배와 주일III부 예배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을 실시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복음화에도 힘쓰고
세계선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집트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이
준교신교사가 세례를 베푸는 모습.



▲ 충현교회는 민족복음화를 위해 전교인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전도
회를 조직하고 놓어준 전도, 직능별 전도, 군전도 등 모든 방면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북한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열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충현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로서 교회재정의
60% 이상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봉사관을 완공하여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교회가 일
년에 두차례 실시하는 전교인 헌혈



□ 초대하면서 드리는 생명의 말씀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 7:37 ~ 39)

신 성 중 목사

(충현교회 당회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든지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마름의 종류와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주님의 초청장의 내용

이 세상에는 초청장 종류도 참 많습니다. 결혼식 초청장, 회갑 초청장, 출판기념회 초청장, 장례식 초청장 등등. 그런데 이 초청장 중에는 달가운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납세고지서처럼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가야하나, 안가야하나? 망설여지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가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40년의 광야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 이들의 의식은 성막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주전자에 떠 옵니다. 그리고는 제단 주위를 7번 돌고 마지막으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 모세가 광야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암의 물이나 광야에서 이들이 마셨던 생수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와서 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초청입니다.

2.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의 종류

(1) 우리에게 육체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입김을 불어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성분이 70%가 넘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다 물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다, 호수, 하천 등 지구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있습니다. 이 물은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생명을 지탱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운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생성된 이후로 물은 이처럼 생명과 연관되어

순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물없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더욱 물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육체적 쾌락을 갈망하는 갈증이 있습니다. 성적인 갈증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갈증을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2)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갈증은 영적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만든 다음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영적 갈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간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 들까지도 우리 인간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싶은 갈증을 가지고 있고 직선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만 오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에게 오면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또 교회의 의식이나 예배에 참여하면 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내게로 즉 주님에게 와야 우리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온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의뢰하고 또 여러분을 주님에게 맡기셔서 모든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마시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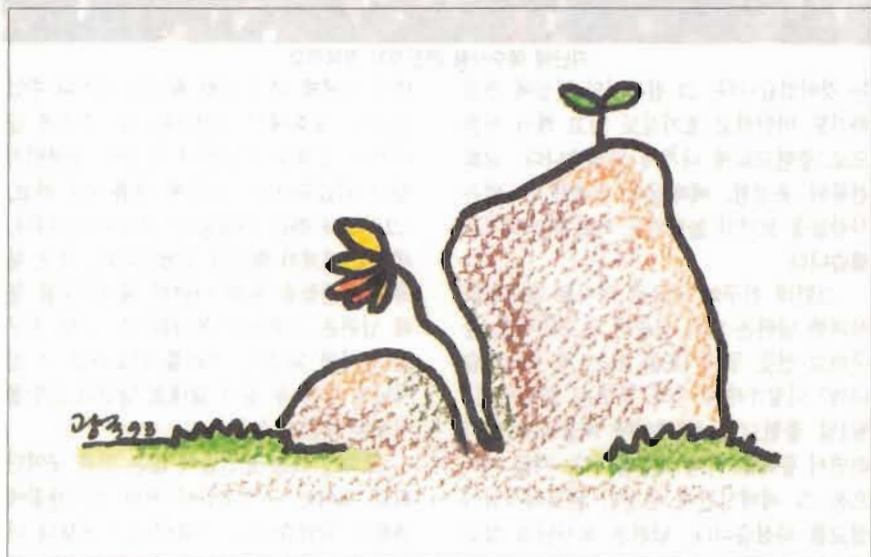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을 마심으로 시원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마셔야 합니다. 마신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절대적으로 내어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원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 주님의 위대한 약속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시원함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증의 해소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만족케 하는 방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흘러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릇은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채워진 후에 흘러 넘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 만족를 원하신다면 주님앞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날, 주님 만나세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자신이 부족함을 아시고 영적 갈증을 느끼신다면 시간이 늦기전에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채움을 받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다 오세요. 주님 앞으로 오세요.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믿기만 하세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밖의 영적갈증을 다 채워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받으시기를 우리들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만든 다음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영적 갈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둘째는 영생에 대한 갈증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반드시 주님에게 와야 우리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는 못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에게는 먹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지만 인간은 도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인간은 바로 도덕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에는 일차적인 욕구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참 만족를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술이 나오고 문화가 창조됩니다. 도덕이 요구되지만 문제는 이것을 성취할 능력이 우리 자연인에게 없습니다. 이 도덕적 욕구는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욕구가 충족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영생에 대한 갈증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영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3. 갈증을 충족시키는 성경적 비결

(1)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대3, 고3) 모두 4식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가정에서 자라난 저는 결혼도 불교 가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교회라고는 출입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제 주변에는 교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친구 엄마도 있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습니다. 가끔 듣게되는 교회 얘기와 그들끼리 모이

는 구역예배가 좋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불교 가정의 어른들, 불신 남편과 빚게될 불화를 생각할 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예전부터 남편이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충현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후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가끔씩 남편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작년 가을이 되면서 전화와 만남의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통해 듣게 된 내용은 충현교회에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는데 한 번 나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일 당일에는 아침 7시부터 몇번이나 전화가 왔고, 오후1시에 데리러 오겠다

● 지난해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어느 성도의 이야기 ●



예수사랑 큰잔치, 그 때가 감사할 뿐입니다.

예자야 성도(13교구)

서는 저의 기도를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남편도 직장 동료들에게 신앙을 갖게 되니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어졌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새 가족부를 거쳐 대학부

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고3 수험생이라 본인에게 억지로 강요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둘째는 고교생 장학퀴즈의 기말 장원대회에 출전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주 장원대회와 월 장원대회에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함을 느낍니다.

이제 한 해가 흘러 제2회 예수사랑 큰잔치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아는 것은 그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하고

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열심에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호기심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충현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웅장함, 예배당에 참석한 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억지로 참석하다 시피한 남편은 나의 신중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선뜻 등록카드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해서 우리 부부는 1993년 11월1일 충현교회 4부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론 그 예배시간에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았고,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막연한 호기심 가운데 참석했지만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생활은 시간이 지나

면서 저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게 새롭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새가족부를 통해 남편은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교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집사님과 함께 두 분이 교대로 남편의 신앙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은 만큼 구역단위로 모이는 구역모임이 저의 신앙생활에 큰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함께 해주시는 구역의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구나' 하는 마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은 만큼 구역단위로 모이는 구역모임이 저의 신앙생활에 큰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함께 해주시는 구역의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구나' 하는 마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편도 직장 동료들에게 신앙을 갖게 되니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어졌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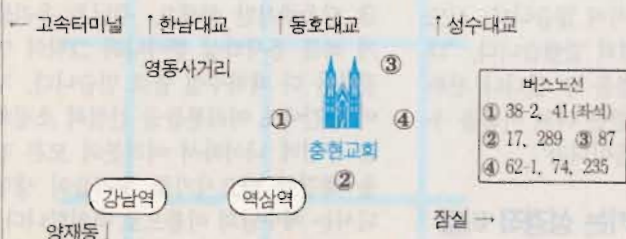
이제 한 해가 흘러 제2회 예수사랑 큰잔치가 다가왔습니다. 1년 전 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이제 아는 것은 그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안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합니다

- 10월 17일 오전 7, 9, 11, 오후 1, 3, 5, 7시 -

아무때나 편리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충현교회로 오시려면



□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예수사랑 큰잔치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잔치 기념품이 있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충현교회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있습니다.
4.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성실한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게 될 것입니다.
6. 그리고 참 자유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